

송구영신 메시지 - 온 세상을 위한 교회

하 용 조 목사 / 2004

마태복음 5장 13절~16절

"2005년 새해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 되길 바랍니다.
어두운 구석을 비추고, 절망에 희망을 주고, 슬픔을 기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빛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가까이 온 주님 오실 날

지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할 때면 수십만의 인파가 보신각 앞에 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한해를 시작하기를 위해 이렇게 모인 것은 축복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2002년 9월 11일 미국의 무역센터 빌딩이 테러로 무참히 무너져 많은 사상자가 난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인재였습니다. 그 후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지난 후 동남아에 상상할 수 없는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 사상자 수가 13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교회 성도 한 가정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로 부모님과 푸켓에 갔던 윤성환 형제와 이지연 자매 가정입니다. 이지연 자매는 다리 절단 수술 중이고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은 서울로 돌아왔으며 남편과 어머니는 시신이 발견되어 화장을 했습니다. 오늘 송구영신을 드리는 이 밤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그 가정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참사를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천재는 인재와 비교할 수 없는 가공할 파괴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식간에, 한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 이렇게 13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원자폭탄과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간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의 홍수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도 실제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구 아래의 판이 부딪혀 이 정도 사태가 일어나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닥친 현실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음을, 역사의 종말이 있음을 누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셋째, 이 지진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럴지 않아도 갖가지 경제, 정치, 사회의 어려움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아시아인데 이런 지진까지 일어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2005년 첫 번째 비전헌금은 지진을 당한 분들에게 드리려 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긴급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의 날까지 깨어 기도하라

첫째, 심판의 날을 홀연히 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지진이 나서 참 안됐다고 생각하고 끝나면 노아시대의 사람들과 똑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임한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그런 일이 절대 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생계를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직장을 버리고 산에 가서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심판이 홀연히 올 수 있음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재앙과 심판, 죽음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교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둘째, 종말과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주신 하님의 경고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밤은 쾌락을 즐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밤은 기도하는 밤입니다. 이 밤은 우리들이 깨어 근신하는 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경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의 손을 펴는 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14절에서는 지구의 종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이 말씀이 현재 우리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사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종말론적이어야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낮 놓고 살지 말고, 방탕하게 살지 말고, 그렇게 낭비하며 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기도하고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7시부터 신년 금식 기도회가, 남양주 기도동

산에서도 철야기도회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 떡국을 먹고 덕담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조국의 위기를 미리 막는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축복이 옵니다. 위기와 고통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낮 놓고 살면 도적같이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멸망 아닌 구원

온누리교회는 2005년도 표어를 ‘온 세상을 위한 교회’로 정했습니다. 지금 어느 때 보다도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세상의 등대,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막는 마지막 보루가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절망하는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은 복 받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교회, 온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이 2005년도 우리의 꿈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와 모든 분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성경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원리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르는 큰 메시지를 봐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핵심사상을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당신이 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두시겠습니까? 잠깐 채찍질 하시는 것이지만 민족을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축복 받을 것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이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휴전

선이 무너지고 복음화 된 통일이 올 것을 믿습니다. 평양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질 것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느 날 막판 뒤집기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건강한 노사문화가 생길 것이고 젊은이들의 일터가 많아질 것이고 노인들은 희망에 가득찰 것입니다. 나는 내 조국, 내 민족을 생각하며 이 꿈과 환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면 이 민족 구할 수 있습니다. 무기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계속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잘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갖길 바랍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도 이 희망을 동일하게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이 변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희망의 조국, 축복의 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한민국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첫째,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부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가장 큰 역할은 맛을 내는데 있습니다. 소금이 없는 음식은 먹기 힘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소금은 간을 내고 부패를 막습니다. 소량이지만 매우중요합니다. 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년에는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

빛의 가장 큰 역할은 어둠을 비추는 데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어둠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절망, 슬픔, 패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은 희망이고 생명입니다.

2005년 새해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 되길 바랍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구석을 비추고, 절망에 희망을 주고, 슬픔을 기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빛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십
니다. 우린 내년엔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바꿀 것입
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일터 위에 충만하기를 축원
합니다. 오늘 우리모두 희망의 불빛을 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는, 격려와 용기와 축복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축
복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리=최문경pink1969@onnuri.or.kr

*** 출처 : 온누리신문**